

## 일본은행 24.4분기중 지역경기판단\*, 2개지역 상향 조정

\* 일본은행은 지역금융경제상황을 9개 광역지역별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지역경제보고서(사쿠라리포트) 발표(2025.1.9일)

- 일본은행은 9개 광역지역 중 2개 지역(토호쿠, 호쿠리쿠)의 경기판단을 전분기(24.10월) 대비 **상향조정\***하고 그 외 지역은 전분기와 동일
- \*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'2025.1월 현재 지역별 경기판단' 참조
- 1개 지역은 '회복(回復) 기초', 5개 지역은 '완만하게 회복(回復)', 3개 지역은 '완만하게 개선(持ち直し)' 로 판단\*
- \* 일본은행 지역경제보고서상 경기판단에서는 '持ち直し'와 '回復'을 아래와 같이 구분
- 持ち直し(pick up): 경기가 저점에서 이전의 정상상태로 움직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한 상태
  - 回復(recovery): 제반 경제지표가 약화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정상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며 持ち直し보다 한 단계 높은 경기 판단
- 금일 지점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- (민간소비\*) 임금인상의 소비진작 효과와 인바운드 수요의 영향으로 관광·숙박·외식 등의 서비스 소비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백화점 고가상품 판매 호조가 지속되었으며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절약지향 소비도 보이고 있음
  - \* 인바운드 수요 포함
  - (설비투자) 건설비용 상승, 일손 부족에 의한 발주취소·연기 등이 일부 보이나, 일손부족 대응·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 투자 수요 및 IT관련 수요 확대 기대로 적극적인 투자자세 유지
  - (생산) 일부 소재업종에서 생산조정이 있었지만, IT업종의 경우 AI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증산 움직임이 보이고, 자동차업종도 높은 수준의 가동률이 지속되고 있음
  - (고용·임금)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구조적인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, 일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익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존재
  - (가격설정)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전가 움직임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음. 한편 인건비 가격전가는 어렵다는 기업이 여전히 적지만 가격전가를 실시·검토하는 움직임도 계속 확산

작성자 : 동경사무소 최호식 과장

<붙임>

### 2025.1월 현재 지역별 경기판단

지역	소속 도도부현 <sup>1)</sup> (都道府縣)	취업자 수 비중 <sup>2)</sup>	지역별 경기판단 내용		
			변화 방향 <sup>3)</sup>	'24.10월	'25.1월
홋카이도 (北海道)	홋카이도	3.9%	⇨	일부 약한 움직임이 있으나 완만하게 개선	(좌동)
토호쿠 (東北)	미야기, 후쿠시마 등	6.6%	↗	완만하게 개선	개선
호쿠리쿠 (北陸)	토야마, 이시카와 등	4.0%	↗	완만하게 회복 (지진의 영향이 여전히 잔존하며, 오키노토 호우의 영향에 대해 주시)	완만하게 회복 (지진의 영향이 여전히 잔존)
칸토·코신에츠 (關東·甲信越)	토쿄, 카나가와, 니가타 등	38.6%	⇨	일부 약한 움직임이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	(좌동)
토카이 (東海)	아이치, 시즈오카 등	12.1%	⇨	완만하게 회복	(좌동)
킨키 (近畿)	오사카, 교토, 효고 등	15.8%	⇨	일부 약한 움직임이 있으나 완만하게 회복	(좌동)
츄고쿠 (中國)	히로시마, 야마구치 등	5.5%	⇨	완만한 회복기조	(좌동)
시코쿠 (四國)	에히메, 카가와 등	2.7%	⇨	완만하게 개선	(좌동)
큐슈·오키나와 (九州·沖縄)	후쿠오카, 나가사키 등	10.8%	⇨	일부 약한 움직임이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	(좌동)

주 : 1) 1都(도쿄) · 1道(홋카이도) · 2府(오사카, 교토) · 43縣

2) 2023년 기준 지역별 비중

3) 전분기 경기판단과 비교시 경기의 개선 또는 악화 정도의 변화를 나타냄(예를 들어, 개선 정도의 강화·악화 정도의 약화는 「↗, 개선 정도의 약화·악화 정도의 강화는 「⇨, 변화 없음은 「⇨」)

